

### 추석 명절 온정의 손길 이어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성지역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물품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청소해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펼쳐져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연출했다.

○...고성경찰서(서장 이용완)는 추석을 앞둔 지난 8일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위원장 해안스님)과 다문화 가정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다문화가정 사랑의 쌀 전달식' 행사를 개최하고, 순찰차량을 이용해 다문화 가정 50가구에 쌀을 직접 전달했다.



○...고성경찰서에 근무하는 여성경찰과 여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누리봄봉사회(회장 박경은)는 지난 8일 죽왕면 송암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이재무씨(81세) 집을 방문해 주변 환경정리를 실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최돈환)는 추석을 앞둔 지난 8일 토성면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 세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최돈환 지사장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공사는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지부장 김장길)는 지난 6일 고성군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섬김' 사랑나눔실천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라면 10박스를 전달했다.



최광호·박승근 기자

### 추석 명절 마을·동문회 행사

민족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방문한 출향인들과 학교 동문들이 우의를 다지는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제3회 초계동문·남강마을 추석 한마당잔치가 12일 간성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남강 6개마을(대대1리, 2리, 송죽리, 오정리, 석문리, 초계리) 주민과 출향 향우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구성초등학교 총동문회는 12일 오전 11시 모교 운동장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구성초교 동문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족구와 배구 등 체육행사와 경품추첨 등이 열려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즐겼다.



○...죽왕초등학교 총동문회는 12일 오전 11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죽왕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열고 족구 및 배구 등의 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인흥초등학교 총동문회는 12일 오전 11시 모교 운동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족구 등 체육행사와 다과회를 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박승근 기자

# 모판 절취 일당 3명 검거

## 고성경찰서 2명 구속... 재사용 공급업체에 팔아넘겨

고성군 거진읍을 비롯해 강원도와 경기도, 충남, 전북, 경북 등 전국을 무대로 농자재인 모판을 훔쳐 재사용 공급업체에 팔아넘긴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전국의 농촌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이 야적해 놓은 모판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월말부터 9월 7일까지 충남 당진·논산, 충북 영동, 전북 익산, 경북 김천·경산·상주, 경기 이천·여주, 강원 고성·철원·홍천 등지에서 모두 14차례에 걸쳐 모판 약 3만3천개(시가 약 3천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특히 8월 31일 오후 10시에는 고성군 거진읍 오정리 황모씨의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야적돼 있던 모판 1,300개(시가



3명의 피의자들이 경기도 포천시 소재 모판 재사용 공급업체인 흥성산업에 팔아넘긴 모판을 업체 사장이 가리키고 있다.

11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 및 4촌간인 이들은 6월 말께 경기도 이천 창천동 인근에 주차돼 있던 봉고 화물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해 자신들의 소유 차량에 부착하고, 이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해현장으로 진입하는 교각의 난간에 차량이 충격한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추적해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용의차량을 확인, 주거지에 은신중인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최광호 기자

# 임야·소나무 매매 사기 2명 구속

## 고성경찰서

고성경찰서는 지난 15일 임야 및 소나무 매매대금 6,100만원 을 편취한 김모씨(48세, 죽왕면)와 소나무 매매대금 5,000만원 을 편취한 배모씨(42세, 고성군 토성면)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 7월 간성읍에 있는 임야를 9천만원에 매입한 뒤, 피해자 유모씨에게 1억 5천만원에 매입하였다고 속여 차액 3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임야내 소나무 약 240주의 매매대금 3천만원도 가로채는 등 모두 6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배모씨는 지난 8월 현내면 임야의 소나무 약 350주를 피해자 백모씨에게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고성경찰서는 소나무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 재향경우회 사무실 개소

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고성재향경우회(회장 김훈환)는 지난 7일 오전 11시 고성경찰서 마당 한쪽에 경우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최광호 기자



## 고성라이온스 정화활동

고성라이온스클럽(회장 최인선)은 지난 3일 간성을 소재 장신리 유원지에서 정화활동 및 자연보호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광호 기자

